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음 5월 29일) 제2321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교류방문단이 중국 내 경제규모 2위 도시인 중국 강소성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지난 27일 난징도서관에서 열린 전북도-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교류 한마당 개막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천싱잉 강소성 부성장, 송성환 도의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테잎컷팅식을 갖고 있다.

전북도-강소성 "실질 협력 확대"

송하진 도지사, 중국 방문

자매결연 25주년 맞아 "함께 도약하는 계기 마련 바래"
우정룽 성장 "협력방안 구체화 되도록 노력할 것" 화답
GCL그룹 등 중국 기업 찾아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펼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교류단은 중국 방문 둘째 날인 지난 27일 강소성장 등과 함께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고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난징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교류한마당 행사는 자매결연 25주년이라는 인연으로 강소성민에게 전라북도를 폭넓게 알리기 위해 전시홍보관 운영,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전시홍보관은 전북도 종합홍보관, 한스타일관, 공예품 전시 및 체험관, 시.군특산품 홍보관, 서예·사진전시 등의 공간과 부대행사로 한복패션쇼, 전통문화체험, 국악공연 등 중국인들에게 관심 있는 컨텐츠로 채워져 직접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소성 인구가 8천만명이고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인 교류의 주체임을 감안할 때 이번 교류행사는 전북의 인지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 지사는 이날 우정룽 강소성장과 공식 환담을 갖고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양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면서, "올 9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중산단 협력 교류회에 많은 장쑤성 경제 관계자와 기업이 참여해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강소성장에게 전북도와 강소성의 경제동반자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강소성장의 전북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우정룽 성장은 "전북과 강소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 문화, 경제발전의 속도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며 "25년전 양 지역 자매결연 당시 지도자들의 넓은 안목으로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룽 강소성장은 이어 "송 지사의 한중경협단지의 무대인 새만금산단 5공구 공동투자 활용 방안, 새만금과 연운항간, 바닷길을 통한 협력 등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송하진 지사는 공식 방문 3일째 기업유치 활동과 교민들과의 만남 행사도 가지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전북도 방문단은 쑤저우에서 중국 태양광에너지 종합그룹인 지씨엘(GCL)사를 방문, 새만금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씨엘(GCL)그룹은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종합그룹으로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최근 전북도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류단은 상하이·칭다오 도민회, 상하이 한인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제교류자문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상하이 최영삼 총영사도 만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구역인 중국 화동지역(상하이, 강소성)에 소재하는 전북도 출신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이들 지방정부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진성 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확산

상산고를 시작 부산 해운대고가 지정 취소 통보 받아
이달 8일 상산고 청문 절차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잇단 평가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돼 2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자사고들이 연일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사고 24곳 중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은 세 번째 지정 취소 통보다.

오는 8일 상산고등학교의 청문절차가 전북교육청에서 열린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상산고와 해운대고는 2001년 10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됐다. 두 학교 외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이 함께 지정됐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정부 들어 자사고로 전환됐다.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하지만 이들 학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로 사회통합전형 대상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의무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015~2018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고도 올해 갑자기 사배자 비율을 10%로 올린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동문회, 지역정계까지 가세해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이며,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라는 표현의 의미는 자사고에 우수학생이 집중돼 고교 서열화가 조장되고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과 중학교 과정에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마이산 · 외구천동 등 진안 · 무주권역 지질명소

전북 2호 국가지질공원 인증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서 최종 의결

진안 마이산, 무주 외구천동 등 진안·무주권역의 지질명소가 정부로부터 전북 제2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전북도의 여행체험 1번지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7년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도내 두 번째이자 전국 열한 번째로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면적은 1154.62㎢로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외구천동, 적상산 천일폭포 등 총 10개의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진안·무주 지질공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질자원 발굴과 가치조사, 탐방객 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 주민 협력체계 구축, 지질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 진행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현장실사와 최종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질공원 자격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성 기자

도, 국·과장급 전보 시군 부단체장 인선

윤동욱 군산 부시장 등 35명

윤동욱 군산 부시장 내정자

임민영 정읍 부시장 내정자

허 전 김제 부시장 내정자

정철우 완주 부군수 내정자

이경진 무주 부군수 내정자

유태희 장수 부군수 내정자

한근호 부안 부군수 내정자

전북도가 지난 28일 국·과장급 전보 및 시군 부단체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전보 인사 및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들은 총 35명이다.

국장급 전보 인사는 김미정 정책기획관,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 이승복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신현승 인재개발원장 등 6명이고, 과장급 전보 인사에 윤여일 예산과장, 이민숙 잼버리추진단장, 전병순 총무과장 등 22명이다.

도내 시군 부단체장에 윤동욱 군산부시장, 임민영 정읍 부시장, 허전 김제 부시장, 정철우 완주 부군수, 이경진 무주 부군수, 유태희 장수 부군수, 한근호 부안 부군수 등 7명이 내정됐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본격화

본 사 인 사

▲김윤상
임:부장
명:경제부

〈7월 1일자〉